

지금 우리 지구는?

고래 '무덤' 되는 인도네시아 해변...왜?

지난 9일, 인도네시아 발리섬 바닷가에 17m 길이의 수컷 향유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발리 바닷가에서 대형 고래가 사체로 발견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3번째. 지난 1일과 5일에도 각각 긴수염고래와 향유고래가 바닷가에서 죽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로 따지면 이번 달에만 18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고래는 생존이 어려워지면 바닷가 인근을 찾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보기

앞으로의 지구는...

204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오염량 "4배" 증가할 것

지금 추세로 플라스틱을 과잉 생산하면 2040년에 이르러 해양 플라스틱 오염양이 4배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세계자연기구(WWF)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5일(현지시간) WWF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조약 회담(UN plastic pollution reaty talks)에 앞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장 해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식별하고 이러한 플라스틱을 제거·감소시키거나 안전하게 관리 및 유통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기사보기 >

세계 해수면 온도 역대 최고

"해양생물에 즉각적 위협"

세계 곳곳이 폭염과 산불로 들끓는 가운데 해수면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해양 생태계·해안 지역 사회·기후 등 연쇄 작용이 예상된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 MWF)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 해수면 온도는 20.96도까지 올라갔다.

지금까지 가장 높게 측정된 해수면 기록은 2016년 3월 20.95도로 0.01도 차이다. C3S 소속 사만사 버기스 박사는 가디언에 "바다가 내년 3월까지 얼마나 더 뜨거워 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연구소 한 곳만의 결과가 아니다. 미국 ··· 기사보기 >



위협적으로 바다 뒤덮어

물질하는 날이 아닌데도 해녀들이 바다로 나왔다. 테왁을 띄우고 물속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건져 올린 건 해산물이 아닌 빈 커피 캔이다. 바다 갯녹음으로 이미 황폐화된 마을 바다, 이제는 쓰레기까지 뒤덮이며 해녀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바다식목일을 맞아 대대적인 바다 환경 정화 활동이 진행됐다. 전문 다이버 수십명이 장비를 갖추고 직접 수거 작업에 나섰다. 물속에는 각종 폐어구와 타이어, 엉켜있는 그물과 밧줄, 심지어 고철도 버려져 있다. 그대로 두면 영구적인 해상오염은 물론 어선 조업이나 물질에도 큰 위험을 줄 수 있다. ··· 기사보기 >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양 오염으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우리는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합니다.

환경오염은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관 기업 개인

당신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지구를 만듭니다.